## 현장시선

# 100세 시대, 똑똑하게 국민연금 활용하기

**김 성 배**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인생에선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는 분명한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의 인생에 대한 경구이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삶의 미래가 명확하지도 않다. 그래서, 인생은 희미한 거대담론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100세 시대 도래와 함께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노후준비의 첫 걸음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사회일각에서 연금제도 개편 논란, 기금운용 불신 등 정치사회적 이슈에 휩쓸려 국민연금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연금제도 개편 등은 큰 틀의 제도 개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짧은 기간에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숙제이며 아직도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는 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주요 소득원이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부정적 여론 등으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자신의 노후만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렇다면, 현단계에서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제도, 임의계속가입 절차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이나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통상 수급 연령보다 미리 받는 조기연금이 있고, 수급연령이 됐지만 바로 받지않고 일정기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연기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는 전문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에게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일찍이 앙드레 말로는 "미래는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했다. 100세 시대, 미래의 노후가 희미할지 라도 살아온 삶 속에서 꼼꼼히 노후준비를 한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이제 인생 후반전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더 길어진 노후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 사설

# 용암수 관리 소홀히 해놓고 발목잡는 행정

오늘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투자유치에 혈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왜 이러는지 안타깝습니다. 투자유치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굴러들어온 기업까지 발로 걷어차는 형국입니다. 바로 제주도가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하겠다고 나선 오리온과 한판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과 용암수(염지하수) 공급에 따른 어떤 공급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며 국내 판매시 용암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국내 판매를 용인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오리온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오리온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허인철 오리온그룹 총괄부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원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 출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제주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허 총괄부회장은 2017년 원 지사와의 두번째 만남에서 용암수의 국내 판매 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를 놓고 마치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다만 짐작컨대 기업이 제주도의 주장대로 거짓말을 했을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와 오리온 중 누가 '갑'입니까. 이미 오리온은 2017년 4월 용암해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그동안 뭘 하다가 공장 다 짓고 제품 출시하겠다고 하니 발목을 잡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하수처럼 공수개념으로 다뤄야 할 용암수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느냐는 것입니다. 진작 용암수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면 이런 불미스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주도의 아마추어 같은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매년 용역에도 겉도는 물 관리 정책

제주도의 중복·유사 용역 문제가 여전합니다.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도의 용역 남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도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이 여러 건 진행되면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 추진하는 물 관련 용역을 보면 유사한 용역이 쪼개기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올만도 합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모두 9건의 물 관련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19억원)을 비롯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제주도 지하수 수질 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비만도 모두 36억원에 이릅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얼핏 보기에도 중복 남발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는 2017년에는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보완 수립, 지난해에는 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비슷한 용역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이뤄진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수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가정의 수도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주도 유수율은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84.3%에 비해 제주도는 44.5%에 불과합니다. 매년 유수율 향상을 다짐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역을 중복 남발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물 관리 정책이 겉도는데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열린마당

# 청렴으로 시작하는 공직생활

**이 조 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2019년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자주 접하는 단어는 '청렴'과 '친절'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공무원은 왜 유독 청렴해야 하는 것일까?

'청렴韓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렴한 당신이 거울 속의 당신의 모습입니다'와 같은 문구도 많이 접해왔고 청렴교육도 수강했지만 왜 청렴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청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잡고자 한다.

홍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조선 전기 문신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인물·풍채가 준수해서 사신으로 보내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에게는 이육이라는 막역한 친구가 있었다. 어느날 이육이 사랑채를 크게 지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홍흥은 수리공을 불러 "나라에 떳떳한 제도가 있는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마땅히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 전했다고 한다.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내가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고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바른 소리를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직자에게는 여섯가지 의무가 있다. 그중에 다섯째는 청렴의 의무이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 청렴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될 문제다. 당장 내 앞에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다. 나의 공직생활은 이제 막 시작이다. 그 공직생활에 청렴을 다시한번 다잡고 시작하고자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내년 총선 앞두고 "명당 사무실 잡아라"

### 예비후보들 임대 문의 쇄도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목 좋은 곳에 위치한 빌딩들은 벌써부터 '상종가'를 치고 있어 눈길.

제주시 노형타워는 시내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후보 사무실 노출이 수월하고 건물이 세로형 대형 현수막을 걸기에 적합해 벌써부터 예비 후보들의 사무실 임대 문의가 쇄도.

노형타워 관계자는 "여러 후보들이 지인을 동원해 사무실을 임대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빌딩들의 '반짝 특수'가 예상된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 "4·3 전 국민 인식도 상승"

○…제주4·3 71주년을 맞은 올해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40만명을 돌파하면서 눈길.

5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4·3평화공원 누적 관람객이 지난 4일 기준 41만2536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평년보다 갑절 가량 증가한 수치.

재단 관계자는 "작년 4·3 70주년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기념사업이 4·3에 대한 전국민 인식도를 상승시켰고, 4·3평화공원 입장객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효과

○…서귀포시가 올해 3월부터 위생취약업소 305곳에 대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결과 식중독 환자 발생수가 전년보다 92% 줄어드는 효과.

컨설팅은 식품위생업소의 식품보관·조리과정, 종사자 개인위생 등 11개 분야 29항목에 대해 사전 위생진단 실시, 식중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맞춤형으로 제시해 호응.

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한 결과 식중독 발생 환자수가 11명으로 작년(138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나주김씨 징인(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6일

아 들 부형민 며느리 오복희

딸 부길자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양현수(1968. 4. 18생)
•최후주소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인향로 14번길 7

상기자는 2019년 10월 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11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19느단6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애월읍 상하귀길 40-9

2019년 12월 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순애, 양유진, 양자은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감귤묘목**

* 유라실생 ..... 1,2,3년생
* 레드향 (무독) ..... 1,2,3년생
* 천혜향 (무독) ..... 2,3년생
* 궁천 .....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 1,2년생
* 하례조생 .....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주간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적기수확, 부패방지 작물보호제 살포 등
○ 유통 중 썩음병 발생이 많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수확 전 작물보호제 살포
○ 과피 착색이 90% 이상 열매를 우선 수확하되 당도가 낮거나 산함량이 높은 경우는 완숙시켜 수확
○ 수확 시 충격 최소화, 비온 뒤 충분한 건조 후 수확하고 그늘에서 3-5일 예조 후 부패과 선별 후 출하
○ 토양피복재배는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 시 수확하며 달린 위치별로 2회 정도 분할 수확
○ 저장고는 염소산나트륨 또는 벤레이트 등 소독하고 콘테이너는 햇빛이 강한 날 맑은 물로 세척하여 건조
□ 만감류: 온도 및 관수관리, 환기철저, 총채벌레 등 병해충 방제
○ 하우스내 온도 상승 최대한 억제하고 주·야간 온도를 자연온도 관리 난방기 있는 경우 낮 15~20℃, 밤 2℃ 이하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 10~15일 간격 5톤 정도 관수하되 토양 특성(물빠짐, 토심 등) 및 정기적인 품질조사 후 관수 간격 및 관수량 결정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해 귤응애, 총채벌레 등 병해충 방제
□ 월 동 무: 흰가루병, 검은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
□ 마 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등 병해충 방제
□ 당 근: 적기수확, 검은잎마름병, 흰가루병 등 병해충 방제
□ 양 배 추: 적기수확, 검은썩음병, 노균병 등 병해충 방제
□ 브로콜리: 적기수확, 검은썩음병, 노균병, 나방류 등 병해충 방제
□ 감 자: 적기수확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62)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양준원(1965. 12. 24. 생)
•최후주소 : 제주시 국기로4길 15-1, 202호 (연동, 희인빌)

상기자는 2019년 9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11월 27일 제주지방법원 2019느단68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9번길 48-1, 101동 1702호(구서동, 신동아아파트)

2019년 12월 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양교녕

**토지주(후손)를 찾습니다**

성명 : 강두현
주소(본적) : 화북일동 4207

선흘리, 회천동 일원에 강두현氏의 사정토지(분묘)가 있사오니 후손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913년 8월 사정토지 등록
- 2014년, 2017년 후손들이 주소 등록 진행
- 現 미등기토지

문의 : 오세형 010-5531-5538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